

#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 과정에 나타난 미국화의 특성

최 수 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The Traits of *Americanization* in Modern Korean Fashion

Sooah Choi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0. 5. 3, 심사(수정)일: 2010. 10. 29, 게재확정일: 2010. 12. 14)

### ABSTRACT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from the traditional Korean *Han-bok* to today's modernized fashion, *The Republic of Korea* received the most influences from *the United States* among other western countries. *The U. S. A.* was the primary country who helped to release *S. Korea* from *Japanese* colonization in 1945, and provided the most economic and military aids after *the Korean War* in 1950.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find out the traits of *Americanization* in modern Korean fashion through sociocultural evidences and reference pictures. The *Americanization* can be defined as *the U. S. A.* influencing cultures of other countries, and sometimes resulted in the substitution of a given culture with American culture. *Americanization* generally is a part of westernization. The analogous terms for *Americanization*, are *Coca-colonization*, *McDonaldization*, *Starbucksization*, and *Hollywoodization*. The theories related to *Americanization* are theory of economic determination, global system theory, conspiracy theory, modernization theory, and theory of dependence. However, *Americanization of Korea* cannot be explained in one single theory, but only can be explained as a hybrid of two cultures. There also is a critical viewpoint of *de-Americanization*. *Americanization of Korea* were studied in three important chronicles, a period of modernization (1945-1950s), a period of industrialization & popularization(1960s-1970s), and a period of consumerization(1980s-present). The traits of *Americanization* in the process of modernizing Korean fashion, were found as simplicity, functionality, popularity(kitsch & mimicry), anti-traditional ethics(unchastity & skin revealing), and materialism(lavishness & trends).

Key words: Americanization(미국화), functionality(기능성), hybrid(하이브리드: 변종/혼종/잡종), popularity(대중성), simplicity(단순성), westernization(서구화)

## I. 서론

'미국화(Americanization)'란 미국의 영향을 받아 기존 국가의 제도나 문화가 미국의 것으로 대체되거나 변화한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미국화란 간과할 수 없는 논제이다. 아시아의 미국화는 1차 세계대전(1914-1918) 전후의 현상으로 보며, 한국의 미국화는 일제강점기(1910-1945)에 시작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sup>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 과정에서도 일제강점기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사례를 찾을 수 있고, 해방 이후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상류층과 신여성 등 일부 계층만이 서양의 복식(양장)을 차용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의 간접통치에서 해방되었으나 남한에 설치된 미군정을 통한 3년간의 직접 통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국문화와 체계가 문화, 교육,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근대화화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근대화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서구의 합리주의, 객관주의, 실용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에 따른 미국의 제도와 문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수용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 복식문화는 한국 전통복식과 서양복식의 다양한 이원구조를 이루면서 현대화와 양장의 보편화가 시작되었다.

복식 분야에서 미국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선경<sup>2)</sup>의 '한국 복식문화의 현대성에 나타난 미국화와 규율권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미국 문화가 소개된 이후의 복식 변화를 현대화, 패션양식 구분, 검열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패션양식은 1920-1930년대를 데카당스, 1950-1970년대를 키치, 1990-현재를 페티시즘으로 구분하였다. 김민자<sup>3)</sup>는 한국에서의 서양패션 수용의 시기를 구분할 때 초창기(1945-1965년): 미군의 군정과 해외동포의 대거귀국으로 서양화와 근대화 및 복식의 이중구조 공존시기, 육성기(1966-1975년): 기성복 산업체제로의 전환과 서양복식이 일상복으로 정착하는 시기, 발전기(1976-1988년): 기술 혁신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정보화시대와 패션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도

약의시기, 안정기와 도약기(1989-현재):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고조와 구체적이고 국적 있는 패션문화의 추구로 구분하였다. 그 밖의 선행 연구들은 유순례<sup>4)</sup>의 '20세기 한국여성복에 나타난 근대성·탈근대성·세계화에 관한 연구', 신소운<sup>5)</sup>의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 복식의 도덕성에 관한 사적 연구', 김수정<sup>6)</sup>의 '1950년대 이후 한국 패션의 변천과 그 양상', 송수원<sup>7)</sup>의 '영국·미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 등 미국화와 관련지어 참고할 연구들이 고찰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문헌을 통해 한국에서의 미국화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본 논문에서는 그 시기를 근대화(1945-1950년대), 산업화와 대중화(1960-1970년대), 소비사회화(1980년 이후)로 크게 구분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화를 사회문화적 고찰 및 사진자료를 통해 밝히고 그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한국 복식문화에 나타난 미국화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 시대의 한국 복식문화를 폭 넓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 축적에 기여한다는데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미국화의 이론적 개념을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 사회·경제·문화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미국화를 이론적 틀과 연관 지어 고찰한 후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화의 사례를 서적, 잡지 및 인터넷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 복식문화에 나타난 미국화의 특성을 밝힌다.

## II. 미국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용어 정의 및 개념 고찰

'미국화'의 사전적 의미는 미국의 제도, 교육, 문화 등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기존의 문화가 미국문화와 혼성되어 변화하거나 미국문화로 대체되기도 한다. 미국화를 바라보는 견해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반한다. 문화의 수용이 적대적인 상황 속에 이루어진 경우

부정성을 함축하고, 자발적인 상황 속에 이루어진 경우 긍정성을 함축한다.<sup>8)</sup>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미국이 유럽을 압도할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을 예측했다. 미국의 헤게모니의 주목하는 스테드(W. T. Stead)는 누구보다 먼저 미국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sup>9)</sup> 유사 용어를 살펴보면 미국화를 포함하는 서구화(Westernization)가 있으며, 특정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데서 비롯된 용어인 코카콜라 식민화(Coca-colonization),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sup>10)</sup>, 스타벅스 라이제이션(Starbucksization), 할리우드제이션(Hollywoodization)이 있다. 미국의 개발브랜드 및 상품(패스트푸드, 커피, 마트 심지어 미디어) 등이 전 세계적으로 장악하며 일상에 스며들었다.<sup>11)</sup> 그밖에도 독일에서는 미국의 물질문화가 대량 유입되는 문제를 들어 '미국주의(Amerikanismus)'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양차 세계대전 사이 유럽에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하게 한 미국의 '포드주의(Fordism)'<sup>12)</sup>와 '과학적 경영(scientific management)'을 주창한 '테일러주의(taylorism)'<sup>13)</sup>의 적극적인 수용이 이뤄졌다.<sup>14)</sup>

김덕호, 원용진(역)은 미국화란 '20세기 초반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가치가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재편성과 (정보)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토대로 세계 각 지역에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그 결과 수용 지역에서 자발적이거나 강요에 의해 그러한 것을 베끼고 따라잡는 현상과 과정'<sup>15)</sup>이라고 정의했다. 안선경·양숙희<sup>16)</sup>에 의하면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식민지 주민의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근대화의 선봉에 선 미국에 대해 환상과 동경을 갖게 했던, 그들과 같아지기를 회구했던 시대의 심리구조와 정향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즉 처음 조선에 미국 문화가 소개되었을 당시 조선인들은 그들에게 결여되었던 '기술과 풍요, 역동성, 자유, 강력한 국가, 근대적 이미지'<sup>17)</sup>를 선망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문화수용을 통한 미국화는 기존의 문화가 대체되는 현상을 일으켰으며 그에 따른 반감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반면에 사회·문화·경제적 발전과 선진국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화의 긍정적 수용은 맹목적

인 선호의 분위기로 이어졌다. 1962년 한국 사회의 외국 선호도와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72%의 응답자가 미국을 "매우 좋다"라고 평가했고, 6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한국을 원조했다"라고 답하였다. 그 밖에도 "미국은 우호적이고 관대하며 예의바른 국가이다, 민주주의적이다, 선진 과학 연구를 대표 한다"라는 이유로 미국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8)</sup>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개인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의 권리 제공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국가이념 아래 인류 최초의 혈연이 아닌 이념으로 생성된 나라이다.<sup>19)</sup> 현재 미국이 겪는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1776년 건국 이래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미국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존재한다. 정치·경제·군사·사회·복지 등 다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었고 유럽, 아시아, 남미의 여러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미국화를 수용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이 다분야의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원인을 합리주의, 객관주의, 실용주의, 이성중심의 사고라고 보았다. 또한 미국과 같은 신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의 다양한 시스템과 문화를 받아들였다. 미국화란 다방면으로 강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을 선망하며 나타나는 미국문화체계의 표방 혹은 대체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sup>20)</sup>, 미국의 영향으로 기존의 문화·체계가 융합(하이브리드: hybrid)되어 새로운 것으로 창출되기도 한다.

미국화에 대한 일반화된 합의점<sup>21)</sup>은 첫째, 유럽, 남미, 아시아에서의 미국화는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 전후로 나타난 현상이며 한국의 미국화는 일제강점기(1910-1945) 시기에 나타났다. 둘째, 미국화가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은 전기와 통신, 기술 혁명과 미디어의 발달 등 산업의 발달과 대중문화를 가능하게 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을 들 수 있다. 통신 기술의 혁명은 전 세계가 균질적인 문화를 공유하는데 기여했다. 셋째, 미국화는 시기와 공간에 따라 비균질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국가마다 다른 상황 아래 자발적이거나 강요에 의해 시작되고 시기별로 진행된 방식의 차이도 존재한다. 심지어 같은 시공간 안에서도 계급, 세대, 성별, 거주 지역,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sup>22)</sup>

## 2.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한 한국에서의 미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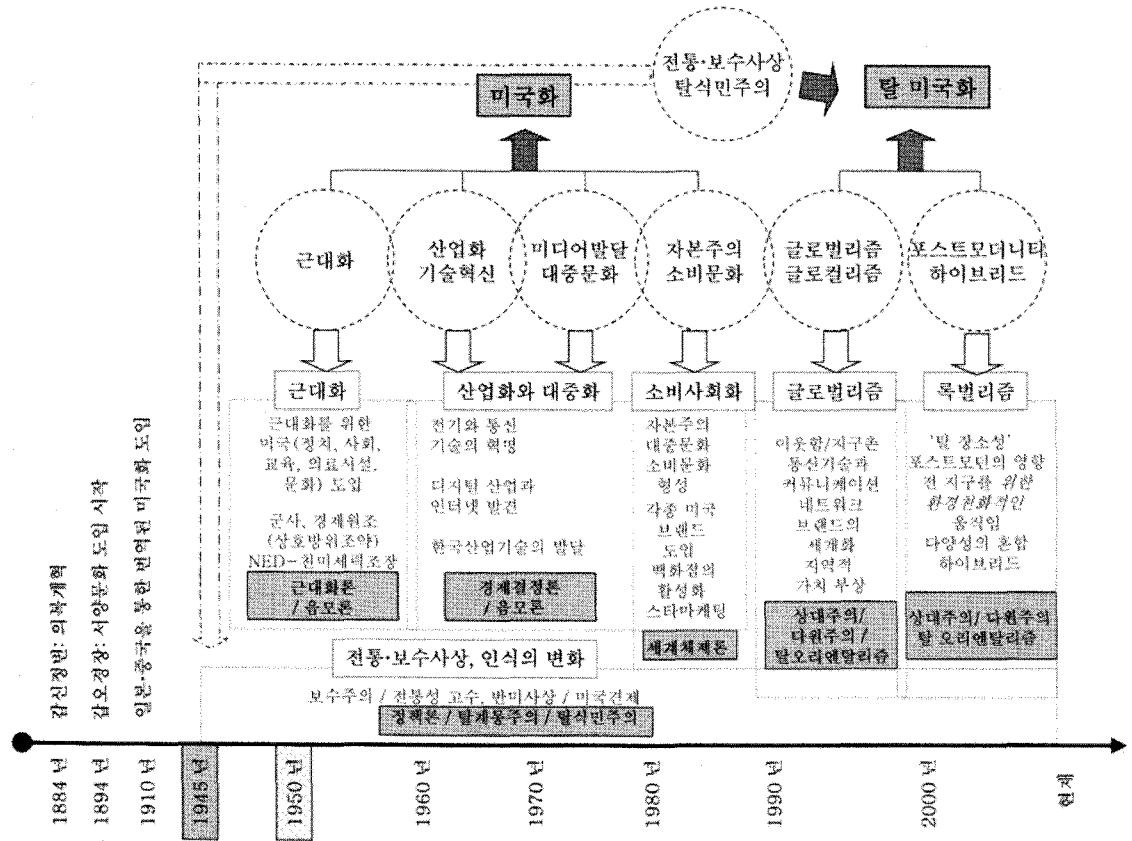
미국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그 어느 것도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못했다. 미국화와 관련된 이론은 과소가 아닌 과잉으로 인해 메타이론(Metatheory)<sup>23)</sup>이 넘쳐났고 그 만큼 적절한 이론적 틀을 갖추지 못하고 표피적 현상을 훑는 기술적 작업만 성행했다고 분석되기도 했다.<sup>24)</sup> 미국화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경제결정론, 세계체제론, 음모론, 근대(화)론, 종속이론, 정책론으로 크게 구분된다.<sup>25)</sup> 필자는 이 중 미국화의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론을 제외한 나머지 이론에 주목한다. 경제결정론은 경제적 문제가 미국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경제결정론을 세계체제론의 시각에서는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볼 수 있다. 경제결정론을 비판하는 반대적 입장은 지역의 사정 등의 다양한 동력이 변인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즉 미국화의 구조적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에 의해 미국화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음모론에서는 미국화가 국가와 대자본의 의도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미국화의 의도적인 장려에 대한 의혹과 미국화를 우연적인 현상으로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는 관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실례로는 다국적 기업과 미국 국가 기구의 협력으로 생긴 여러 프로그램, 해외에서의 미국홍보, 경제원조, 해당 지역의 엘리트 교육, 정치 공작 등이 있다. 후자의 주장은 미국의 의도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의도만으로 미국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며 우연성과 수용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의도성과 우연성간의 경계가 모호 하자 의도성과 우연성, 수용성의 교차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한다. 1953년에 남한에 창설된 미공보원(USIA: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은 미국에 관한 모든 지식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기여했다.<sup>26)</sup> 1983년에는 한국에서 점차 반미여론이 커지자 전국민주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sup>27)</sup>을 설립하여 제 3세계의 친미세력을 배후 조종했다는 사실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근대(화)란 미국화를 서구화의 한 양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서구적 합리의 확산(diffusion)을 근대화 혹은 발전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넷째, 종속이론은 미국화가 종속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sup>28)</sup> 미국화가 자주 근대화(process of modernization)와 관련되어 논의되어 지는데 그 이유는 이미 산업의 선두에 있던 미국의 원조 혹은 교류를 통해 다양한 미국의 시스템과 문화 등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서구적 합리화의 확산(diffusion of rationalism)을 근대화 혹은 발전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도 상황적으로 필연적인 미국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주장하듯 현대성과 서구성은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헌팅턴은 현대화가 되기 이전에 이미 서구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서구적 개화는 보편적이어서가 아닌 특별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다.<sup>29)</sup> 한국에서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또한 현대화되기 이전에 서구화가 시작되었고 미국의 역할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이었다. 근대화론은 미국이 신생국의 비공산주의적인 진화와 사회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개발된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1946년 파슨즈(Talcott Parsons)를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학자들은 연구, 강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sup>30)</sup> 한국에서 미국화는 일제강점기 시기 의도성에 의해 시작되었다가 자발적 수용으로 이어졌다. 즉 미국화의 음모론 관련해서는 한국에서의 미국화는 의도성과 우연성 및 수용이 동시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미국화는 미국의 체계 및 문화 수용에 있어서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되어 적용되었으므로 종속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결과로는 수동적인 수용에 따른 종속적인 관계 보다는 적극적 수용 과정을 통해 미국화를 변종성/혼종성/잡종성의 하이브리드(hybrid)<sup>31)</sup>로 보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게 된다. 단 변종성/혼종성/잡종성의 입장으로 미국화를 바라볼 때 탈구조주의, 탈식민주의 등을 통한 탈미국화(de-Americanization)에 대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sup>32)</sup>

<표 1><sup>33)</sup>은 미국화와 관련된 이론적 틀을 적용한

<표 1> 이론적 틀을 적용한 한국의 미국화·탈미국화와 사회문화적 결정인자



한국에서의 시대별 미국화 및 탈미국화와 사회문화적 결정인자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서구와의 교류가 최초로 시작된 갑신정변(1884년)과 갑오경장(1894년)을 거쳐 일제의 한국 통치가 시작되면서(1910년) 한국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통한 번역된 미국화가 시작되었다. 한국은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고 기술혁신의 발달, 미디어/대중문화 발달을 통한 자본주의 및 소비문화가 자리 잡는 과정 안에서 미국의 영향을 꾸준히 받았다. 또한 최근 거론되는 탈미국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탈식민주의의 영향과 보수파의 전통성 고수 및 반미주의자들에 의해 미국화 과정 속에 지속적으로 공존하였음이 고찰되었다. 이에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sup>34)</sup>의 영향과 함께 고유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미국화와 함께 탈

미국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단 본고에서는 한국 복식문화에 나타난 미국화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 III. 한국의 복식문화에 고찰된 미국화

#### 1. 근대화(1945-1950년대)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남성복과 여성복에서 밀리터리 룩이 유행하였다. 1940년대 유럽 스타일과 소재에 의존하던 미국에서는 인조·합성 섬유와 발전으로 기성복 시장이 확장되면서 독자적인 패션이 추구되었다. 한국에서도 1945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일본을 통해 실용·기능주의적 복식의 요구되었으며 점차 전통한복을

벗어버리기 시작했다. 1940년대 전시체제의 총력전에 대비하여 국민복을 입도록 군민복령이 공포되었고, 여성들은 심플한 원피스 형태의 간단복을 입도록 요구되었다. 간단복은 일반적으로 허리에 벨트가 있고 스포츠 칼라에 포켓 등이 있으며 직선적이며 활동적인 형태로 밀리터리 룩<그림 1><sup>35)</sup>의 영향을 받은 형태였다. 한국 여성들에게 실용성과 활동성의 용이함을 이유로 일본의 노동복에서 유래된 몸빼 바지를 입도록 강요되면서, 여성들은 처음으로 치마·저고리 차림을 벗고 다리를 들어내는 반전통적인 복식차림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점차 전통복식의 일반적 착용에서 양장 착용이 일반화되기까지 복식의 이원구조<그림 2><sup>36)</sup>가 빈번하게 고찰되었다.

그 밖에 1950년대 한국 복식문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점은 한복의 소재 및 구성의 변화와 비로도(벨벳: Velvet)의 대대적인 인기와 나일론 섬유 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그림 3>은 비로도로 만든 개량 한복의 치마 차림이다. 특이한 점은 아녀자가 장옷을 덮어 쓰고 눈만 보이게 하고 길을 다니던 보수적인 사회에서 장옷대신 우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치는 소재가 인기를 끌었다는 점이다. 억압되었던 여성들은 한복치마 아래 꿩뽕 싸매 숨겼던 유방이 한복의 어깨허리<sup>37)</sup>의 발명과 양장착용으로 자유로워짐처럼 빠른 속도로 서양 특히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문화를 받아들였다. 1953년경 처음으로 수입된 나일론은 질기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 때문에 양말, 셔츠, 블라우스, 한복감과 심지어는 속옷으로도 널리 사용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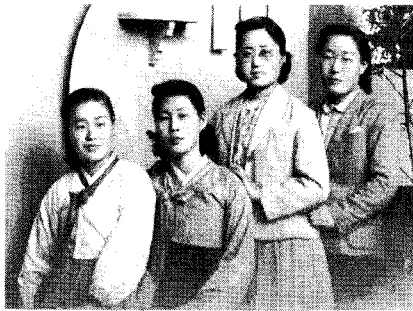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반전통적 복식 형태와 더불어 구호물자에 의한 구제 혹은 리폼형태를 통해 미국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전쟁 이후 경제적 결핍을 겪던 한국은 미국의 원조와 국제 연합 구호단체, 국제 적십자사의 구호물자에 크게 의존했다. 구호물자를 통해 공급 받은 옷을 용도나 사이즈나 성별에 맞지 않게 입는 경우가 허다했다. 노년 여성이 앞가슴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를 입거나 나이 및 성별구분이 되지 않은 채 맞지 않은 옷을 입기도 했다. <그림 4><sup>39)</sup>는 미군에게 초콜릿을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의 사진이다. 사진 속에 12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가 구호품으로 받은 가슴이 봉긋한 여성복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구제품의 양복, 코트 한복 등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등 중고품 가게와 수선집이 번성 하였다. 군용 담요는 겨울옷을 만드는 원단이 되고, 미국의 털양말을 어린이용 스웨터로<그림 5><sup>40)</sup>, 카키색의 군복바지를 몸빼로 개조하여 착용되었다.<sup>41)</sup> 남학생들은 군복에 검정물을 들여 개조하거나 학생모를 만들어 착용했다. 미군 군수물자에 프린트 된 'U. S. A'나 'UN'이라는 글씨를 없애기 위해 물감을 들이고 코트로 만들어 입었다. 미24군 헌병사령부는 배급 받은 미군복을 염색하여 착용하지 않으면 모두 몰수한다고 발표했다. 카키색 하복, 미군화, 삼립색 의복, 목포를 제외한 기타 물자는 배급 전에 염색하였고, 염색을 하지 못한 배급품에는 'SKIG'라는 스탬프를 찍기도 했다.<sup>42)</sup> 청계천을 중심으로 군제품 전문 염색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기름 드럼통에 검정물을 끓여 군복을 물들이고 방파제에 쌓아 놓은 돌 위로 염색한 옷을 말리는 전경이 펼쳐졌다.<sup>43)</sup> 6·25 한국전쟁 이후 청계천 5, 6가 사이에 군수품을 판매하는 '군수품 시장'이 형성되었다. 군용품은 값싸고 질기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 군수품에 미제라는 타이틀은 고급품으로 취급되었고 1970년대까지도 군용 점퍼는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sup>44)</sup> 낙하산 제작에 사용되는 나일론(Nylon 66)<sup>45)</sup>이나 미군의 모기장을 블라우스 소재로 사용하여 반투명한 시스투 룩(see through look)이 유행하기도 했다.

당시 소비문화의 실현을 꿈꾸게 하는 거의 유일한 매개체인 '미육군 매점(PX: Post exchange)'을 통해 사람들은 커피, 담배, 기호품, 음악테이프, 운동용품, 가전제품 등을 갖기를 원했고<sup>46)</sup>, 가족잡바, 나일론 잡바, 할로 모자, 짬뽕모자, 칼, 금시계, 야광시계를 구매하기도 했다.<sup>47)</sup> "한국의 물질적인 소비문화를 암묵적으로 주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이렇듯 물질적으로 결핍을 겪던 한국 복식문화에서 미국화의 상당 부분은 구호물자에 의한 리폼 패션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군정 시기에 도입된 대중문화의 영화계는 해방 후 3년간 한국 극영화



〈그림 1〉 기능주의 복식, 전병란 개인소장, 1956년



〈그림 2〉 조선 식산(殖産)은행 직원들의 이원적 복식 구조, 최덕식 개인소장, 1945년경



〈그림 3〉 비로도 한복과 양장코트, 전병란 개인소장, 1958년경



〈그림 4〉 구호품인 부인복의 여아,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1950년대, p. 141.



〈그림 5〉 구호품 담요로 만든 아동복, 생활속에 담긴 우리옷의 발자취, 1950년대, p. 82.



〈그림 6〉 영화 자유부인 한 장면, <http://image.search.naver.com>, 1956년

15-16편, 미국 영화가 100편 내외로 주요 극장을 독점했다.<sup>49)</sup> 외화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당시 미국 여배우를 모방한 패션이 유행하였다. 또한 한미군의 파티 문화나 행사 등이 생소했던 당시 사람들은 유흥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정비석의 '자유부인'〈그림 6〉<sup>50)</sup>이라는 한국 영화는 선풍을 일으켰다. 주인공은 대학교수 부인이지만 '화교회'라는 모임을 통해 자유롭게 사는 여성들을 접하고 양장점에서 일을 하면서 춤의 세계에 빠지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미군의 위안부 및 애인의 역할을 담당한 양공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화의 확산이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미망인이 생겨났다. 이들은 평균 2명 이상의 부양 자녀가 달려 있는 모자 가정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컸으나 이들을 돌보는 시설의 수용 한계는 약 5~6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sup>51)</sup> 여성 가장으로서 절박한 상황 아래 많은 부녀자들과 어린 여성들이 '양공주(양색시)'<sup>52)</sup>나 매매춘 행위자로 전락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약 4만 명으로 추계되었다.<sup>53)</sup> 1945년 미군이 인천항에 상륙하면서 외곽도시인 부평에 최초의 기지촌이 생겨났고 생계를 위해 한국여성과 미군과의性交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휴전 직후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게 되고,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미군들을 위한 '휴식과 레크리에이션(R & R: Rest & Recreation)'<sup>54)</sup> 시설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미군 기지로는 평택시 안정리 팽성읍, 의정부시 용현동, 고산동, 송산동(예전 경기 양주군 별내면)에 뻗별<sup>55)</sup>이라고 불리는 마을, 리틀 시카고(Little Chicago)라고 불리던 동두천 보산

리 걸산마을,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촌, 용산역 부근 등이 있다. 개화시기에도 벌써 전통문화 고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롭게만 비취지는 미국의 개방문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김현숙<sup>56)</sup>은 전부는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는 많은 부분 기지촌 중심으로 형성된 물질문화, 성 문화를 미국문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2. 산업화와 대중화(1960-1970년대)

짧은 양장의 역사를 지닌 한국복식은 처음에는 서양의 옷을 모방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완벽한 모방에서 벗어나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체형을 고려하기 시작했다.<sup>57)</sup>〈그림 7〉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 도상을 이루기 위해 미국의 실용성, 간편성 및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의복의 생산이 적합하였다. 그렇지만 1960년대에는 아직도 해외의 1950년대 유행하던 S라인, H라인, Y라인이 유행하는 등 1960-70년대까지도 해외에 비해 유행이 몇 년 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8)</sup> 1960년대 중반 명동의 부띠끄들이 기성복을 소량 판매하기 시작했다. 1967년 신세계에서 대량으로 고급 기성복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큰 히트를 치면서 기성복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sup>59)</sup> 같은 시기 노라노 고급 기성복점, 진태옥 명동 맞춤 기성복 전문점 프랑소와즈(1968년), 부띠끄 7(옛 미즈백화점)(1976년) 등이 생기면서 맞춤복에서 기성복 시대로 전환되었다. 명동에 위치했던 노라노의 수제자 박윤정이 운영한 미스박 테일러는 큰 인기를 끌었다.<sup>60)</sup> 1967년 한국에서 양복 총판이 설립되고, 1979년 전체 의류 매상액이 약 1천억 원에 이르는 등 기성복의 판매는 급증했다.<sup>61)</sup> 1970년대는 총무로 3가, 종로 2가, 이대입구가 명동에 이어 패션거리로 부상했으며 의상점에서는 맞춤형식에서 기성복의 행태로 사이즈, 색상별 제품을 판매했다. 1970년대 초 제일모직의 골덴 니트나 화산산업의 레나운 등 대기업은 기성복업계에 투자하면서 기성복의 활성화가 빠르게 증폭되었다.<sup>62)</sup> 기성복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산업체의 발달로 고급화의 시대를 맞게 되고 1977년의 조선일보기사<sup>63)</sup>에는 “여성 기성복 너무 비싸다”

라는 글이 실릴 정도였다. 기성복의 2대 큰 장점인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후자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기성복 산업이 자리를 잡아갔다. 기성복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고 당시 유명 메이커 기성복 회사였던 경방코너, 반도상사, 뽕뽕, 논노, 와라실업<sup>64)</sup>, 한일합성, 코오롱, 뉴골든<sup>65)</sup>의 옷들을 잡지에서 화보로 집중 소개하기도 했다.<sup>66)</sup> 한국에서의 미국 브랜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결과론적으로 한국 의류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기본 노동 임금이 낮아 미국의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OEM과 연관된 직물회사나 의류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의류 산업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생산된 옷과 물품이 비공식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생산 공장과 직접 혹은 간접적 기타 경로를 통한 제품들은 한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작은 방이나 가게에서 암암리에 판매되었다. 또한 이런 물품은 이태원의 노점상을 통해 판매되기도 한다. 수입 및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이태원을 통해 미국문화나 문물의 단면을 경험하기도 했다.<sup>67)</sup>

산업의 발전에 따른 대중문화의 보급으로 대중들은 미국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할리우드(hollywood) 영화를 통한 남녀배우들의 의상은 한국 복식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77년 6월호를 시작으로 『의상』지에서는 약 50여 년간(1925- 1975년) 제작된 영화 의상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의상 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작 기사를 실었다. “할리웃 영화 속의 의상: 불꽃처럼 화려한 엠지엠(MGM) 영화사의 의상”에서는 시대별의 엠지엠 영화의 의상을 소개하면서 특히 유명 영화 의상 디자이너 에드리안 로젠버그(Adrian Rosenberg)를 포함한 디자이너들의 수많은 의상을 소개했다.<sup>68)</sup> 그 밖에도 파라마운트(Paramount) 영화사의 4개의 오스카상을 획득했던 의상디자이너 에디스 헤드(Edith Head) 등을 다룬 “우아한 품위, 파라마운트 의상”<sup>69)</sup>, 워너브라더즈(Warner Brothers)의 의상디자이너<sup>70)</sup>, 마를린 먼로(Marlyn Monroe)의 의상을 맡았던 찰스 르메어





〈그림 7〉 여학교 동창생들의 양장차림,  
전병란 개인 소장, 1960년대 초



〈그림 8〉 양희은 통기타와  
청바지, 1960-70년대,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9〉 초미니 스커트,  
윤복희, *의상계 창간호*,  
1968. 1



〈그림 10〉 케네디  
영부인의 미니차림,  
<http://image.search.google.com>



〈그림 11〉 케네디  
영부인의 미디차림,  
<http://image.search.google.com>



〈그림 12〉  
미니차림,  
*의상·의상*,  
1971. 2



〈그림 13〉 미디차림,  
1960년대, *崔敏子  
自伝年鑑 패션 50年*,  
p. 117.

(Charles LeMaire)와 윌리엄 트라빌라(William Travilla)를 포함한 폭스(Fox)사의 의상 디자인<sup>71)</sup> 등이 연재되었다.<sup>72)</sup> 미국의 유명 배우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제 35대 미대통령(1961-1963)이 된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의 영부인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의 패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도 주목 받았다. 케네디 미대통령은 혁신적인 정치로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고, 재클린은 여성 해방운동과 패션 선도자로서 큰 영향을 미쳤다.<sup>73)</sup> 〈그림 10〉<sup>74)</sup>은 재클린 케네디의 즐겨 입던 미니스타일의 모습이고, 〈그림 11〉에서는 발렌티노(Valentino)의 미디스커트 착장 모습이다. 〈그림 12〉<sup>75)</sup>와 〈그림 13〉<sup>76)</sup>은 1960년대 한국에서 유행한 미니와 미디길이의 원피스와 스커트차림이다. 헤어스타일에서 포즈와 옷차림까

지 한국 여성들은 세계 유행에 관심이 많았고, 점차 미국의 유행과도 일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1970년대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의 보급과 이에 따른 미국문화의 도입을 주목해야 한다. 당시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대중음악과 더불어 가수들의 복식형태가 유행하였다. 국내에서는 하위문화의 완벽한 차용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념적인 것을 제외한 부분적인 외향적 요소의 특징만이 수용되었다. 이러했던 큰 이유는 1970년대 초 한국에서는 하위문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장발, 미니스커트, 청바지와 생맥주, 통기타는 젊은이들의 상징이었다. '통·블·생(통기타, 블루진, 생맥주)'로 상징되는 청년문화가 대표되는 시기였다.<sup>77)</sup> 대표가수로

는 한대수, 김민기, 양희은<그림 8>, 조동진, 정태춘 등의 솔로 가수가 있었고 트윈폴리오(송창식, 윤형주), 라나에로스포(은희, 한민), 사월과 오월(백순진, 김태풍), 어니언스(임창제, 이수영) 등의 듀엣가수가 억압적인 분위기에서도 노래했다.<sup>78)</sup>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별들의 고향(1972-1973)'의 소설가 최인호, 가수 양희은, 이장희, 저항가요가 된 '아침이슬'의 작곡가 김민기, 바둑기사 서봉수, 전 고려대 응원단장 이상용 등이 1974년 청년들의 이상으로 지목되었다.<sup>79)</sup> 또한 한국에서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계기는 1967년 미국에서 귀국한 가수 윤복희<그림 9><sup>80)</sup>가 미니스커트 차림을 선보이면서였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히피족에 대한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을 금지하는 등 매스컴을 통제했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초까지 유행했던 미니스커트는 결국 풍속사범의 단속대상이 되어 무릎 위 17-20cm 이상은 경범죄로 처벌되었다. 1973년 3월 10일 발효된 '개정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그 해에만 1만 2870명이 장발 단속에 걸렸다.<sup>81)</sup>

노동집단이 즐겨 입던 작업복으로 시작되어 오늘 날까지도 널리 입혀지는 진(Jeans)은 대표적인 유니섹스 아이템으로 이 당시 국내에서의 보급이 시작되었다. 젊음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진바지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는 유니섹스 아이템이다. 하위문화의 유행과 함께 유니섹스 캐주얼이나 청년 문화의 부상은 기성복의 정착과 함께 멀리 퍼졌다. 점차 많은 여성은 팬츠 정장을 즐겨 입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페미니스트적인 영향으로 여성의 남성 수트 스타일 착용이 확산되고, 남녀 복식차림에 차이가 없는 유니섹스 스타일이 유행했다. 여성복에서는 남성복에서만 사용되어오던 줄무늬 옷감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남성의 전유물인 좁은 형태의 타이가 착용되기도 했다. 남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복의 틀에서 벗어나 셔츠 칼라를 재킷 밖으로 내놓고 넥타이 대신 스카프를 착용하기도 했다.<sup>82)</sup>

### 3. 소비사회화(1980년 이후)

한국의 1980년대는 경제적·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의류산업도 국제화시대에 들어선 시기

이다. 또한 필수적 소비보다는 질 좋고 값진 것을 추구하는 선택적 소비 형태로 전환되는 과도기이기도 하다. 의류 기업들은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고, 타겟 전략, 정보수집, 해외브랜드 도입, 기술제휴, 유통 경로 개선, 판매망 확충 등 전략적 경영을 하였다. 1980년대 해외시장 개방으로 미국의 다른 국가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졌으나 그만큼 미국브랜드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더 용이해지면서 미국화는 지속되었다. 유행 개방으로 인해 해외연수가 늘었고, 젊은이들은 팝문화를 포함한 해외 문화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았다. 스포츠와 레저 및 외식 산업의 번창, 마이카 붐, 자연건강식품의 선호의 분위기 속에 외국 유명상표의 의류나 스포츠 용품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sup>83)</sup>

1980년대 초 한국에서 소비자들은 타인 지향적이었던 기존의 생활 패턴에서 자기중심적 생활 패턴으로 전이하는 주체성 있는 소비 태도로 전환 해갔다.<sup>84)</sup> 주체성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고 의상을 도구로 여기며 본인 스스로를 디자인의 완성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베스트먼트 드레싱(Investment Dressing)'은 '투자 가치가 있는 옷'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같은 품질의 상품이라면 조금 싼 가격에 구입하고자 하고 반면 품질이 아주 좋고 사용가치가 높은 것이라면 다소 높은 가격이라도 구입하는 소비자 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결과로 언제나 가치를 잃지 않는 심플하고 베이직(simple & basic)한 것을 기본으로 개성적인 것은 가미하는 식으로의 의생활 패턴의 추세가 시작되었다. 현대여성의 심플성 추구<sup>85)</sup>는 뉴욕의 패션 그리고 직장여성을 위한 웨어와 함께 관심사가 증폭되었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기존의 절대적인 미국패션의 추종에서 이태리 등 다른 패션도시의 패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이며, 서구 패션의 완전한 모방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국내패션이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의류수입의 경우 1961년 10만 달러로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까지도 수출의 1%를 못 미치다가 1996년 15억1천 7백만 달러가 수입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sup>86)</sup> 1986년 수입자유화로 세계 유명 명품 브랜드가 백화점과 전문매장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1989년 7월 수입의류에



〈그림 14〉 유니섹스 룩, 조선일보, 1987. 1. 9.



〈그림 15〉 디스코바지의 유행, 월간 멋, 1985. 3.



〈그림 16〉 스노우진의 유행, 리바이스 & 서지오, 월간 멋, 1987. 12.



〈그림 17〉 스포츠웨어, 스키복, 월간 멋, 1985. 12.

대한 관세가 30%에서 20%로 인하하면서 해외 유명 고가브랜드의 도입이 증가했다.<sup>87)</sup> 1986년 아시안 게임 개최와 1988년 서울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해외여행 자유화, 수입 자유화와 같은 개방정책이 이뤄졌다.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소비풍조가 더욱 확산되었다. 해외 유명브랜드의 수입이 이어졌고, 유통구조 등을 이유로 국산 브랜드의 제품보다 2~4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sup>88)</sup>

1980년대의 대표적인 실루엣으로 파워 드레싱(power dressing)인 남성의 역삼각형 실루엣이 강조되는 빅룩(Big look)이 있다. 1980년대 후반 남녀패션 모두에 영향을 미치면서 빅룩의 유니섹스 룩이 고찰되기도 했다(그림 14)<sup>89)</sup>. 1980년대 젊은 세대들은 미국의 팝송과 록음악에 열광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마돈나(Madonna), 프린스(Prince Rogers Nelson), 티나 터너(Tina Turner), 그룹 가수인 뉴 키즈 언더 블럭(New Kids On The Block) 등이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노래 뿐 아니라 가수들의 패션이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유행했던 디스코 패션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어린아이에서 젊은이들에 걸쳐 디스코바지(그림 15)<sup>90)</sup>를 입었다. 형광색으로까지 보이는 밝은 톤의 다양한 색상의 옷을 레이어로 입고 레깅스나 통이 아래로 좁아지는 형태의 디스코바지를 매치했다. 캐주얼의 필수 아이템이 되어버린 청바지의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했다. 내셔널 브랜드인 뱅뱅과 화이트호스 외에 죠다쉬(Jordache), 리바이스(Levi's), 서지오 바

렌테(Sergio Viente), 리(Lee) 등의 브랜드가 라이선스 계약으로 도입되었다(그림 16).<sup>91)</sup>

미국의 의류산업을 발전시킨 중심에는 대중적 여가문화와 기성복 대량생산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스포츠웨어는 이러한 미국의 독립적이고 토착적인 성격과 민주주의적 특성<sup>92)</sup>을 반영해온 대표적인 산물이다. 1930년대 미국은 기성복과 스포츠웨어 부문의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아메리칸 스포츠웨어는 제 2차 세계대전 전후를 기점으로 실용성과 편안함을 가치로 제안하는 독립적인 미국적 패션 범주로 여겨지게 되었다.<sup>93)</sup> 보도(Baudot)는 “미국인들이 스포츠웨어를 발명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확대되고 그 시대를 창출하고 미국패션의 선두에 서도록 만든 것은 미국인들이다”라고 말했다.<sup>94)</sup> 하지수<sup>95)</sup>는 스포츠 캐주얼 기능주의를 편안하고, 꾸밈이 없으며, 위장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드러내는 스타일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스포츠캐주얼 기능주의란 기능주의의 기계적, 유기적, 도덕적인 유추를 질층적으로 표현하며 미국인의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캐주얼화된 라이프스타일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국내에서 개최된 88서울 올림픽은 국민들로 하여금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스포츠웨어(그림 17)의 착용과 마켓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도 세련된 색상과 디자인의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으로 차용하기 시작했다.<sup>96)</sup> 1988년에는 올림픽 상품을 선보이기 위한 “88 스포츠 패션쇼”가 개최되었고, 국민들은 여가를 즐기

<표 2> 시대별 한국 복식문화에 고찰된 미국화



는 시간이 늘면서 레저용 캐주얼웨어나 스포츠 캐주얼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sup>97)</sup> 이렇듯 한국에서는 미국 패션을 대변하는 캐주얼과 스포츠웨어가 1980년대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편안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대중적인 옷차림으로 자리 잡았다. <표 2><sup>98)</sup>는 한국 복식문화에 고찰된 미국화의 특성을 시대별로 구분한 표이다.

#### IV.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화의 특성

한국 복식문화에 나타난 미국화의 특성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기능성, 대중성, 反 전통적 도덕성, 몰신성이 고찰되었다. 한국에서의 미국화는 미국합리화의 확산을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보는 근대화론이나 미국홍보, 경제원조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장려하였다는 음모론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실용성을 가능하게 한 미국화의 가장 대

표가 될 수 있는 단순성과 기능성은 대중패션인 기성복의 성장과 함께 효율성과 편리한 의생활을 일반화 시키는데 기여했다. 해방 이후 간단복과 국민복 등을 착용을 권장함으로써 노동력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과 경제적인 이유로 백의의 착용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경제결정론이 지지된다. 또한 양장의 일반화와 대중화에 미국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 미국의 또 다른 특성을 대중성으로 볼 수 있다. 미국화를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보는 관점은 한국 복식문화가 점차 유행을 접하게 되면서 소비품조가 생겨났다는 물신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화의 또 다른 특성인 유행성과 소비성은 한국전쟁 후에도 당시에 맞게 시작되어, 자본주의 사회가 자리 잡히면서 더욱 부상되었다. 비정숙성과 노출성은 한국 전통에 벗어나는 미국화의 反 전통·도덕적인 측면이다. 남녀 복식문화에 전통문화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점 높아지는 노출수위도 전통과 도덕성에 반하는 현상이다.<sup>99)</sup> <표 3><sup>100)</sup>은 한국 복식문화에서 나타난 미국화의 특성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 1. 기능성(단순성 및 기능성)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화의 미적특성 중 대표적인 특성은 기능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간단복이나 국민복 혹은 개량한복의 형식을 통해 복식의 기능적인 면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 복식문화의 현대화 과정에서 서양복식 양식을 일상복으로 받아들이고 보편화가 된 가장 큰 미국화의 특성은 복식의 기능성이기 때문이다. 복식의 기능성이 미국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미국을 통해 도입되었고 보편화되는데 기여를 하였기에 미국화의 큰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기능성은 복식의 착장형태가 단순화된 또 다른 미국화의 특성인 단순성을 포함한다.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는 양장점의 맞춤 방식에서 기성복의 대량생산 방식으로 전환되어 의복 생산에서의 기능성이 향상되었다. 1980년대 아시안 게임 및 올림픽의 서울 개최는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리고 아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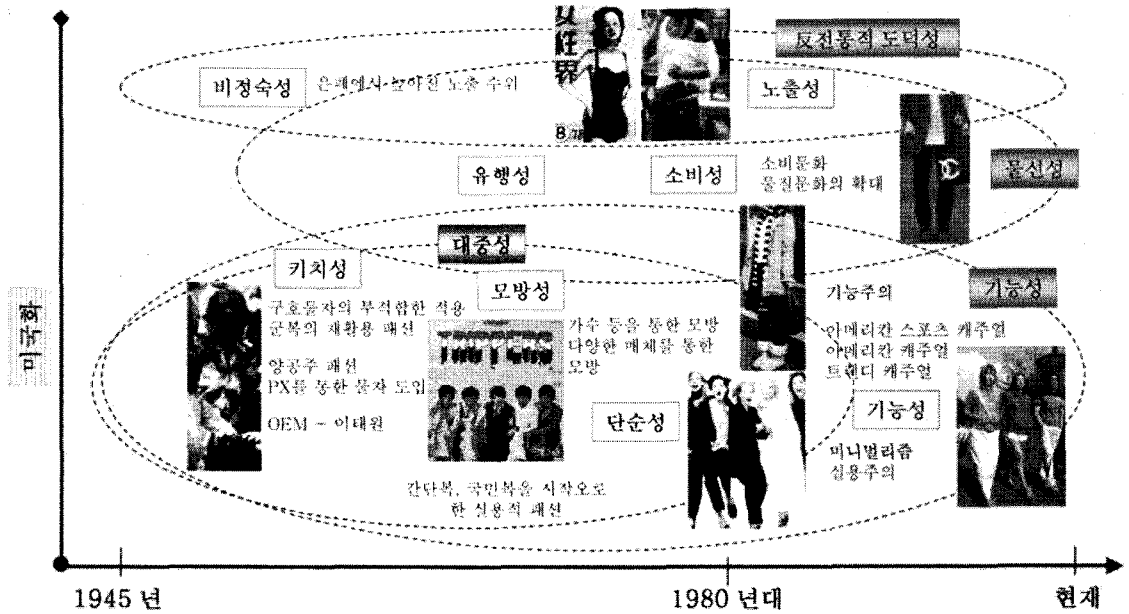
리칸 패션의 주가 되는 아메리칸 캐주얼과 스포츠웨어는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남녀노소에게 보편화되었다. 지금까지 일상복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복식은 단순성 및 기능성이 중요시된다.

### 2. 대중성(키치성 및 모방성)

한국 복식문화에 나타난 미국화는 모방과 근대화 시기의 키치적 특성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한국은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구호물자로 전쟁 후 겪는 고통을 해결하였다. 미군군복은 물론 양말, 담요, 낙하산지, 모기장 등 군수용품을 개조하여 의복결핍을 해결했으며 심지어 구호물자를 활용한 리폼 형태가 유행하기도 했다.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 과정에 나타난 미국화의 시작은 당시 상황 상 불가피하여 의존했던 원조품을 사용한 복식 형태에서 고찰된다. 여기에서의 미국화의 특성은 키치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복식이 근·현대화 되는 과정에서 모방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근대화 시기 양장이 도입되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축적이 부족했던 상황 아래 거의 대부분의 양장은 해외잡지 등을 통해 모방 되었다. 또한 미국 영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영화배우들의 의상도 모방 되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가 시작 되면서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영상,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미국 문화가 국내에서 쉽고 빠르고 폭넓게 전달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중성은 미국화의 중요한 특성이다. 미국의 대중문화와 대량 생산은 국가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유럽과 아시아 등의 많은 나라에 미국화가 진행되게 한 원동력이다. 또한 1960-1970년대 히피, 펑크 등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하위 문화의 유행은 국내 가수나 배우를 통해 대중들에게 소개 되었고 남성의 장발, 판탈롱 펜츠, 여성의 미니스커트, 청바지, 통기타 등이 유행했다. 1980년대에도 미국의 팝문화가 도입되어 유명 가수들의 패션이 한국 젊은 이들의 복식형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꾸준히 대중 문화를 통한 모방과 그로 인한 미국화가 존재했다.

〈표 3〉 한국 복식문화에서의 미국화의 특성(표 3) 한국 복식문화에서의 미국화의 특성



### 3. 反 전통적 도덕성(비정숙성 및 노출성)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 혹은 현대 복식의 일반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反 전통적 현상이다. 전통 한복의 의미와 의관 형태는 서양복식의 구조와 착장 방법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근대시기 한복의 불편함을 덜고 실용성을 더하기 위한 의복의 개량은 전통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反 전통적인 행위였다. 백의 금지와 장(장옷)의 폐지는 한국의 일본식민지 시기 전통문화의 정신사 말살로 연결되었다. 여성이 바지를 착용하기 시작한 점 자체도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획기적이면서 비정숙한 것이었다. 오랜 전통 속에 남녀 내외(內外)를 목적으로 한 쓰거나 장옷의 폐지로 장옷 대신 우산을 쓰다가 그조차도 무의미 해졌다. 1970년대 초 히피문화에서 유래되어 유행한 남성의 장발은 '퇴폐풍조'로 '풍기문란죄'로 취급되어 단속 대상이 되었다.<sup>101)</sup> 1980년대의 유니섹스 룩에 의한 남녀의 유사한 복식 형태와 남성의 파마머리도 피어싱도 전통에 따른 기준에서는 비정숙한 것이다.

한국전쟁 후 의복소재의 결핍으로 사용된 튼튼한 소재의 낙하산지 혹은 뉴통 소재로 만든 블라우스의

유행으로 속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노출이 처음 시도 되었다. 여성들이 일제강점기 시기 입기 시작한 몸매를 시작으로 한 바지의 착용으로 전통적으로 다리를 드러내지 않던 착장의 모습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변화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여성들에게 대대적인 인기를 끈 미니스커트에 의한 과한 노출이 풍속사범의 단속대상이 되어 경범죄로 단속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남·여의 슬리브리스(sleeveless) 차림이나 1990년대 유행한 여성의 배꼽티 등 노출의 정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감해졌으며 허용범위 또한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 4. 물신성(소비성 및 유형성)

물론 한국에서 물질에 대한 욕망은 미국화의 본격적인 시작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미국의 한국주둔으로 미육군매점(PX)에서 흘러나온 음식, 제품 등이 비공식적으로 판매되기도 하고 미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할리우드 영화,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미국의 선진화된 사회와 문화 안에 비추지는 풍족한 물질은 물질

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인 산업화의 시작과 해외 브랜드의 국내 수입 확대와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의 소비성은 점차 커졌다.

미국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유행성은 존재했다. 그러나 미국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여 지는 유행성이란 미국 배우들의 의상에 모방을 위한 유행이나 미제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존재하는 미제품을 활용한 유행을 실례로 찾을 수 있다. 배우 뿐 아니라 미국대통령의 영부인 등 유명 인사의 복식문화를 모방하여 유행되거나, 미국가수 등을 모방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위문화가 유행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점차 미국이나 세계 패션의 유행과 한국패션의 유행의 시간의 간극이 좁아졌다. 또한 한국의 현재 복식문화는 미국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세계 패션을 주도하는 국가의 디자이너들도 기존에 관심 밖에 있던 국가의 유행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유행의 원천과 취향은 세계화 되었으며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한국의 전통복식에서 현대복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과도기 과정에서 미국화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의 미국화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어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의 영향인 미국화 현상에 대한 고찰과 그에 따른 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미국화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미국화란 다방면의 선두의 입장에 있던 미국을 선망하여 미국의 문화표방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문화가 미국 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즉 미국을 선망하여 닮아가는 현상을 미국화라고 일컫는다. 미국화를 바라보는 두개의 큰 관점은 자발적 긍정성과 적대적 부정성이 있다. 미국화는 서구화에 속하며 코카콜라 식민화, 맥도날드 화, 스타벅스라이제이션, 할리우드 제이션이라는 용어로도 혼용될 수 있다. 미국화는 시

기와 장소에 따라 비균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미국화는 처음에는 일제강점기 시기 의 도성과 강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이 후 자발적인 수용으로 진행되었다. 즉 한국에서의 미국화는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미국화와 관련된 이론은 경제결정론, 세계체제론, 음모론, 근대(화)론, 종속이론이 있다. 그러나 미국화를 하나의 이론에 틀에 맞춰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에서의 미국화는 자본주의 확산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시작되었으므로 필자는 경제결정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화가 처음 시작되는 시기 국가 대자본의 의도로 진행되었다는 음모론 성립이 일부 가능하나 의도성, 자발성, 우연성이 복합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여하튼 미국화와 서구의 합리화 확산을 근대화 과정으로 본 주장과 같이 미국화는 한국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속론 관련해서는 한국에서의 미국화는 한국의 문화가 미국에 종속된 것이 아니고, 한국 실정에 맞게 변종/혼종/잡종의 하이브리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나타난 미국화 및 탈 미국화 현상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결정인자는 다음과 같다. 미국화는 근대화, 산업화와 기술혁신,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발달, 자본주의와 소비사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문화가 도입되면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근대화 시기 미국의 정치, 사회, 교육, 의료시설, 문화,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미국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전기와 통신, 기술의 혁명, 디지털 산업과 인터넷 발견을 통해 산업이 발전되고 대중문화가 시작되어 자리 잡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비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탈 미국화 현상은 미국의 반대개념으로 탈 식민주의적 담론과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파나 반미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개념이며 미국화와 함께 공존했다. 또한 최근 고유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금의 글로벌시대에는 다문화와 다양성이 추구된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록블라이제이션과 연관되어지는 탈 미국화 현상에도 주목 하여야한다.

넷째, 한국 복식문화에 근·현대화 과정에서 고찰된 미국화 현상을 문헌 및 사진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미국화를 근대화(1945-1950년대), 산업화와 대중화(1960-1970년대), 소비사회화(1980년대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근대화 시기에는 한국전쟁 후 기능주의 및 구호물자에 의한 복식, 양장과 한복의 이중적 복식구조, 양장 디자인의 도입, 미국영화의 영향을 받은 복식에서 미국화가 고찰되었다. 산업화와 대중화시기에 나타난 미국화의 특성은 산업화에 의한 기성복의 보편화,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영향, 하위문화의 부상과 유행을 들 수 있다. 소비사회화 시기에는 점차 미국브랜드를 비롯한 미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미국화가 나타났다. 이시기에 나타난 미국화 현상은 팝문화 등을 통한 영향, 미국의 영향을 받은 세계 트렌드의 반영, 캐주얼과 스포츠웨어의 보편화가 있다.

다섯째,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기능성(단순성 및 기능성), 대중성(키치성 및 모방성), 반전통적 도덕성(비정숙성 및 노출성), 물신성(소비성 및 유행성)이 있다. 이 중 복식문화에서 나타난 미국화의 가장 큰 특성은 단순성, 기능성, 대중성을 들 수 있다. 미국화의 대표적인 특성이면서 실용성을 목적으로 한 특성은 단순성과 기능성이다. 이는 한국 복식문화의 현대화 과정에서 양장이 일반화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일본을 통해 번역된 형태로 착용 권장된 간단복과 국민복을 시작으로 활동의 편리를 제공한 양장의 착용과 캐주얼 및 스포츠웨어가 일반화된 현상은 미국화의 단순성 및 기능성의 예가 된다. 또한 양장의 일반화와 대중화에 미국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 미국의 또 다른 특성을 대중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대중성은 해방 이후 미국원조물자를 활용한 키치적 복식형태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양장을 모방하는 복식형태를 포함한다. 반전통적 도덕성은 한국전통에 벗어나는 복식형태 즉 비정숙성과 노출성을 포함한다. 미국의 영향으로 전통문화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존재했으며 점점 높아지는 노출수위도 전통과 도덕성에 반하는 현상이다. 끝으로 물신성으로는 한국에

서 미국을 통해 접하게 되는 자본주의의 영향과 그에 따른 소비풍조 및 유행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바라보는 미국문화는 간혹 왜곡된 물질만능주의의 표본이었다. 풍족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사회에 대한 선망은 소비성과 유행성을 부추겼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결과 한국 복식문화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화는 미국문화로의 종속이 아닌 혼종/잡종화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복식문화가 있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 미국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에 의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부정적 영향은 보완할 수 있다. 후속 연구로는 한류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미국화와의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고유문화의 고부가가치를 인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자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고유의 것을 재창조하는 것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록별라이제이션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덕호, 원용진 (2008). *아메리카나이제이션: 해방이후 한국에서의 미국화*. 서울: 푸른역사, pp. 15-16.
- 2) 안선경 (2001). *한국적 복식문화의 현대성에 나타난 미국화의 규율권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민자 (200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총서 26,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전통미와 현대적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173-182.
- 4) 유순례 (2001). *20세기 한국여성복에 나타난 근대성·탈근대성·세계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신소운 (1993).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 복식의 도덕성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수정 (1988). *1950년대 이후 한국 패션의 변천과 그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송수원 (2008). *영국·미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최수아 (2009). *해방 이후 한국패션에 나타난 미국화·탈미국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2.
- 9) 스테드(W. T. Stead) (1849-1912): 영국의 언론인으로 1901년 출간된 그의 저서 *세계의 미국화(The Americanization of the World)*를 통해 미국의 경제 발전이 이미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높은 수준에 도달해 영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상품과 문화를 받아



- 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덕호, 원용진, *앞의 책*, pp. 23-24.
- 10) 리처, 조지(George Ritzer: 미국의 사회학자)의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는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점의 특성(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통제)이 사회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는 과정과 그것이 초래하는 불합리성을 말한다. 즉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미국 사회와 그 밖의 세계의 더욱더 많은 부문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는 그의 저서 *Jihad vs McWorld* (1995)를 통해 'McWorl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riksen, Thomas Hylland (2007). *The key concepts: Globalization*. Oxford, New York: Berg, p. 59.
  - 11) 최수아, *앞의 책*, pp. 10-11.
  - 12) 포디즘(Fordism): 용어의 유래는 Henry Ford가 1913년 제작 시간을 획격적으로 단축시킨 포드 자동차 T 모델 생산을 위해 고안한 이동식 조립라인에서 유래했다. 미국의 1940-1960년대 높은 경제 성장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 시스템을 일컫는 개념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대량생산체제의 경직성과 단순 반복적인 세부화 된 작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면서부터 서서히 생산방식의 지위가 흔들리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의 유연성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이 대두되는데 이를 포스트 포드주의(Post-Fordism)나 네오 포드주의(neo-Fordism)라고 한다. 송수원, *앞의 책*, p. 203, *위키백과사전(국)*, 자료검색일 2008. 3. 자료출처 <http://ko.wikipedia.org> & *네이버*, 자료검색일 2008. 3. 자료출처 [www.naver.com](http://www.naver.com).
  - 13) 테일러리즘(Taylorism): Frederick Winslow Taylor는 19세기 말 수차레의 '시간과 동작'을 연구하여 작업장에서 이뤄지는 행동을 가장 효율적인 구성단위로 분해한 테일러리즘을 고안하여 공장의 생산 효율을 극도로 높이는 생산체제를 가능하게 했다. 노동력을 절약하는 효율적 주방 및 가정용 기기의 출현은 모두 테일러리즘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이다. 송수원, *위의 책*, p. 203.
  - 14) 김덕호, 원용진, *앞의 책*, p. 24.
  - 15) *위의 책*, p. 17.
  - 16) 안선경, 양숙희(2001). 한국 근대 복식문화에 나타난 아메리카니제이션에 관한 연구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1), p. 59.
  - 17) *위의 책*, p. 59.
  - 18) USIS Seoul→USIA Washington(1962.6.18). Subject: Study of Korean Attitudes Towards the United States, p. 3, RG306, Record, pertaining to Exhibition in Foreign Countries, Box20을 허은 (2008). *미국의 해계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냉전시대(1945-1965)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 361-362에서 재인용.
  - 19) Lipset, Seymour M.(1922-2006: 미국 보수 사회학자)은 혁명을 통해 설립된 미국을 인류 역사상 이념으로 뭉친 최초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송수원, *앞의 책*, p. 213.
  - 20) 최수아, *앞의 책*, p. 17.
  - 21) 김덕호, 원용진, *앞의 책*, pp. 15-16.
  - 22) 김상률 (2005). *탈식민시대의 미국문화읽기: 차이를 넘어서*.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pp.19-20.
  - 23) 메타이론(Meta-Theory): Metatheory 혹은 Meta-theory란 그 이론의 주제가 다른 이론인 것을 의미한다. 위키백과사전(영), 자료검색일 2010. 5. 7.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 & 이론 체계 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이론, *네이버 영어사전*, 자료검색일 2010. 5. 7. 자료출처 <http://endic.naver.com>
  - 24) 김덕호, 원용진, *앞의 책*, p. 12.
  - 25) *위의 책*, p. 20.
  - 26) *위의 책*, p. 27.
  - 27) 전국민주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해외의 민주주의를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로 1983년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미 정부의 예산 일부를 해외 친미세력에게 공급해 이들을 육성한다는 것이며 레이건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로 공식화 되었다. 대한노총, 전국민주재단은 국제기업센터(CIPE), 자유노조연구소(FTUI), 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NDIIA), 공화당 국제문제연구소(NRIIA) 등 산하 4개 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해외에 지급한다. 반구문제학회, 반구내 교육자료센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당도 NED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재정(1991.6). 국제, 미국의 제3세계 지배기구 NED의 정체. *월간 맑*. 서울: (주)월간맑, pp. 62-66.
  - 28) 김덕호, 원용진, *앞의 책*, pp. 19-20.
  - 29) Zakaria, Fareed (2008).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 London: Norton, p. 74.
  - 30) 최수아, *앞의 책*, p. 28.
  - 31) 김덕호, 원용진, *앞의 책*, p. 18.
  - 32) *위의 책*, p. 20.
  - 33) 최수아, *앞의 책*, p. 85.
  - 34) 록블라이제이션(Lobalization): 서울대 조동성 교수는 록블라이제이션을 '로컬(local)기업의 성공 비결이 글로벌 시작으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이 밖에도 한국기업의 성공의 글로벌 확산을 의미하는 '코블라이제이션(Kobalization)'도 있다. 코블라이제이션은 Korea와 globalization의 조합으로 '한세화(韓世化)'라고 해석되는 신조어다. 김민자 (2007. 12. 24). "문화가 최고의 부가가치 창출." *국제섬유신문 & 정철환* (2007. 10. 15). "Kobalization! 한국식 경영이 세계표준으로" 조선일보를 최수아, *앞의 책*, p. 2에서 재인용.
  - 35) 전병란 개인 소장, 촬영 장소 청주무심천, 조사 일자 2010. 3. 20.
  - 36) 최덕식 개인 소장, 조사 일자 2008. 2. 5.
  - 37) 1911년 부임하여 10년간 이화에서 재직한 Ms. Walter 과 Ms. Pye에 의해 치마허리의 개량이 이뤄졌다. 오늘날 '어깨허리'라고 불리는 모양을 고안하여 한복 치마의 착용과 활동성을 편리하게 변화시켰다. 유수경 (1990). *韓國女性洋裝變遷史(한국여성장갑변천사)*. 서울: 일지사, pp. 150-151.
  - 38) *위의 책*, pp. 279-280.

- 39) 서중석(2007).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9쇄). 서울: (주)웅진씽크빅, p. 141.
- 40) 국립민속박물관 (2003). *생활속에 담긴 우리 옷의 발자취*. 서울: 신유문화사, p. 82.
- 41) 유수경. *앞의 책*, p. 190.
- 42) 고부자 (2001). 방일영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총서14. *우리생활100년*·웃. 서울: 현암사, p. 216.
- 43) *위의 책*, p. 216.
- 44) 지재원 (1988. 2). 청계천 '군수품 시장'. *월간 멋*. 서울: 동아일보사, p. 105.
- 45) Nylon 66: 미국 듀폰사의 캐러더스에 의해 개발된 대표적 폴리아미드 섬유. *위의 책*, p. 169.
- 46) 박완서(1991. 여름). 1950년대 '미제문화 비로도가 판치던 거리.' *역사비평*, 13호.
- 47) 송병수 (1957). *소리킴*. 서울: 동아출판사.
- 48) 김현숙 (2006). GI와 PX 문화를 통해 본 미국문화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8, p. 150.
- 49) 서중석. *앞의 책*, p. 70.
- 50) *네이버 이미지 검색*. 자료검색일 2008. 3. 1. 자료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 51) 김현숙. *앞의 책*, p. 143.
- 52) 양공주(양색시):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주둔하게 된 미국부대를 주변으로 미국들의 'R & R(Rest and Recreation)'시설이 자리를 잡게 되고 미국을 상대로 한 위안부 혹은 애인 역할을 하는 매춘부 여성이 생겨났다. 이러한 목적의 매춘부 여성이나 당시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을 통틀어 양공주, 양색시, 양갈보, GI 신부 등으로 비하하여 불렀다. 미국에서는 이들을 바걸(Bar girl), 호스티스(Hostess), 특수 엔터테이너, 비즈니스 우먼, 위안부라고 불렀고,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을 전쟁신부(War Bride)라고 불렀다. 접대부를 거느리고 술집을 하는 이들은 포주 혹은 유엔마담이라고 불렀다. 최수아. *앞의 책*, p. 92.
- 53) 김현숙. *앞의 책*, p. 143.
- 54) R & R(Rest & Recreation): 제 3세계 분단 시대의 여성운동. 분단시대와 한국사회국가에서 전쟁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들이 그 나라에 주둔한 외국군대를 상대로 매춘을 행하게 하는 정책. 오지연 (1997). *미군 기지촌 매춘여성들의 주변적 문화 -의정부시 송산동 기지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p. 12.
- 55) '뻬벌': 배밭이었던 동네가 배벌이라고 불리다가 뻬벌로 불리게 됨. 사람들에게 의해 '한 번 밭을 들여 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곳이 바로 곳'이라는 뜻으로 풀이됨. *위의 책*, p. 14.
- 56) 김현숙. *앞의 책*.
- 57) 정혜란 (1991. 6). "유행은 몇 년마다 바뀌는가?". *월간 멋*. 서울: 동아일보사, p. 267.
- 58) *위의 책*, p. 269.
- 59) 장인석 (1985. 3). "유행1번지 명동". *월간 멋*. 서울: 동아일보사, p. 206.
- 60) *위의 책*, p. 206.
- 61) 김청 (1981. 6). "특집: 패션산업의 경영전략 -기성복을 중심으로-". *의상(의상)*. 서울:衣裳社, pp. 22-23.
- 62) 금기숙 외 9명 (2002). *현대 패션 100년, 1900-2000*. 서울: 교문사, p. 237.
- 63) *조선일보* (1977. 11. 10). 여성 기성복 너무 비싸다.
- 64) 의상편집부 (1977. 11).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기성복. *의상(의상)*. 서울:衣裳社, pp. 18-31.
- 65) 의상편집부(1977. 12). 기성복 퍼레이드/ 새시대 새각각 새패션. *의상(의상)*. 서울:衣裳社, pp. 27-41.
- 66) 최수아. *앞의 책*, pp. 100-101.
- 67) *위의 책*, p.102.
- 68) 체에리체티. 데이빗 (1977. 7. 8. 9. 10. 11). "헐리웃 영화 속의 의상: 불꽃처럼 화려한 엠지엠(MGM) 영화사의 의상①②③④⑤⑥". *의상(의상)*, *앞의 책*, p. 96-. p. 102, p. 66, p. 96, p. 94.
- 69) 체에리체티. 데이빗, 백문영(역) (1977. 12-1978. 2). "우아한 품위, 파라마운트 의상(Paramount Polish)①-③-". *의상(의상)*, *앞의 책*, p. 98, p. 78.
- 70) 체에리체티. 데이빗, 백문영(역) (1978. 7). "워너브라더스, 재기의 디자이너 오리 켈리-②-". *의상(의상)*. 서울:衣裳社, p. 130.
- 71) 의상편집부 (1979. 6). "헐리웃 의상 디자인: 능란한 기교의 20세기 팩스 영화사편-③-". *의상(의상)*. 서울:衣裳社, p. 110.
- 72) 최수아. *앞의 책*, pp. 105-106.
- 73) 금기숙 외 9명. *앞의 책*, p. 210.
- 74) *구글 이미지 검색*. 자료검색일 2008. 3. 1. 자료출처 <http://image.search.google.com>
- 75) 의상편집부 (1971. 2). *의상(의상)*. 서울:衣裳社.
- 76) 최경자 (1974). *崔敬子 自伝年鑑 패션 50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117.
- 77) 유석재 (2008. 7. 18 (A8)).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미니스커트·장발은 '저항의 상징'". *조선일보*.
- 78) 손성진 (2008). *20세기 한국을 읽는 25가지 풍속 키워드*, 『러키 서울 브라운보 대한민국』. 서울: 추수밭, p. 153.
- 79) 유석재 (2008. 7. 18 (A8)). *앞의 책*.
- 80) 최수아. *앞의 책*, p. 267.
- 81) 금기숙 외 9명. *앞의 책*, p. 228.
- 82) 최수아. *앞의 책*, p. 110.
- 83) 정혜란. *앞의 책*, p. 270.
- 84) 이호정 (1981. 5). "81/82 추동 패션경향의 종합진단". *의상(의상)*. 서울:衣裳社, pp. 22-27.
- 85) *위의 책*, "특집: 81/82 패션트렌드의 감각- 현대여성 이 바라는 심플성 추구", p. 80.
- 86) 지혜경 (2002). *한국 의류무역의 변화 추이 및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54.
- 87) 김영관 외 2명 (1989. 2). "한국에 상륙한 세계의 오리지널 패션명품들". *월간 멋*. 서울: 동아일보사, p. 105.
- 88) *조선일보* (1988. 10. 13(10)). "백화점마다 수입의류코너 증설".
- 89) *조선일보* (1987. 1. 9). 자료검색일 2008. 5. 7.

- 90) 월간 멋. 자료검색일 2008. 5. 7.
- 91) 최수아. *앞의 책*, p. 115.
- 92) 송수원. *앞의 책*, p. 215에서 재인용.
- 93) *위의 책*, pp. 41-42.
- 94) *위의 책*, p. 42.
- 95) 하지수 (2001).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3.
- 96) *조선일보* (1988. 5. 7(8)). "스포츠웨어도 '외출복시대.'"
- 97) 최수아. *앞의 책*, p. 116.
- 98) *위의 책*, p. 140 표에서 수정, 2010. 6.
- 99) *위의 책*, p. 179.
- 100) *위의 책*, p. 181 표에서 수정, 2010. 6.
- 101) *위의 책*, p. 158.